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는 폐사지를 찾는 것은 '숨은 그림 찾기'와 마찬가지로. 한갓진 돌 담이나 예사롭지 않은 바윗돌, 울창한 송림이나 대숲이 보이면 혹시 여기가 옛 선지식들이 가부좌를 틀던 그곳이 아닌가 하여 유심히 들여다보게 된다. 이 나라가 불법(佛法)의 땅이어서 실제로 고살고살 운수남자들 머물던 흔적 없는 곳이 없고, 나무든 풀이든 부처님의 숨결 느껴지지 않는 곳이 드물다. 강이든 산이든 무심코 대하거나 할부로 스치기가 어려운 것이다. 무상한 것이 세월이어서 가까스로 찾아낸 옛 절집이라 하여도 달려가 외락안겨 들지 못하는 것은 밀려드는 그리움보다 등 돌려 외면하는 방초들의 몸짓이 완강한 탓이다. 세월이 수상하면 아무리 대중들 밭고투를 탐처럼 쌓았던 대가림이라 허더러도 늦대점에 푸른 녹슬 듯 쇠멸하기 마련이다. 어쩌다 사세(寺勢)가 기울어 동으로 서로 흩어져 장식품으로 전락한 성보들을 보면 그 이산(離散)의 아픔에 가슴이 울려거린다.



담양 서봉사지



감나무 밭으로 변한 '절골 7만평'

'대(竹)의 고장' 담양 서봉사지(瑞鳳寺址)는 그 서북쪽 노령산맥의 한 갈래인 주월산 아래, 무등산으로 이어진 자미탄가의 후미진 암봉 골짜기에 숨어있다. 화순 땅 운주사지로 가려다가 식상한 감이 없지 않아 숨은 그림을 찾듯 새로운 절터인 담양읍 남면 정곡리 '절골'을 찾아가기로 했다. 폐사지 탐험에도 격식이 있다. 발길 복원으로 유명세를 타는 곳이라도 입장료를 받는 곳이 아닌 곳, 암자나 전각 정도로는 안 되고, 적어도 남원 땅 '만복사의 귀승'처럼 저물녘 탁발을 끝내고 돌아오는 사문들의 행렬이 장관이었던 곳, 지목이 농지나 임야이더라도 그 나락들 발치에 추억의 편린처럼 부서진 기왓장이나 도자기 파편들이 심심치 않게 튀어나오는 곳이어야 한다.

서봉사지에 대한 기록이 풍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국여지승람>장평원조에는 '서봉사 재 무등산(瑞鳳寺 在 無等山)'이라 되어 있고, 조선총독부 발행 <호남읍지> 장평조에는 '서봉사 재 무등산 동북 경술화소(瑞鳳寺 在 無等山 東北 庚戌火燒)'라고 되어 있다. 서봉사의 정확한 사명(寺名)이 '서봉사(瑞鳳寺)'인지 '서봉사(瑞鳳寺)'인지 혼돈스러우나 절골이 위치한 산 이름이 서봉산(瑞鳳山)이므로 후대에 와 소실과 중건을 반복하면서 절 이름이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분명한 것은 절터를 예위한 산봉우리, 솔숲과 대숲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 느껴진다는 것이다.

기록이 분명치 않아 절에 관한 사료를 찾기가 마땅치 않으나 점심을 먹으며 들린 '정곡가든'에서 그나마 실오라기 같은 반가운 소식을 듣는다. 송광사 전자암 활안스님이 서봉사의 복원에 관한 원력을 세운 모양인데, 그 모연문을 이곳 저곳에 돌린 것이다. 모연문에 의하면 서봉사는 고려 명종 때 황주서기와 충주판관을 지낸 이지명(李知命)이라는 사람이 창건하여 조선시대 철종 3년(1852)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되어있다. 사료의 출처가 모호하여 진위를 가리기 어려우나 출가사문의 소명이 현존사찰의 대소기를 거느리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의 뒤안길에 주저앉은 망가진 가람의 풀길 법맥의 대를 잇는 것도 의미가 있으므로 그 분의 목탁소리가 메아리 쳐 절골 안에 울리기를 기대한다.

서봉사지는 수 백년 된 대나무가 마을의 연륜을 말해주는 마을 뒤 권 분지에 담겨있다. 마치 대바구니에 가지런히 과실을 담은 형상이다. 적어도 수 십채의 전각이 계곡을 메우고 있었다면 그 형기는 유림(儒林)이 아니라도 근침을 삼켰을 만하다. 사실 담양 땅 광주호 일대는 이렇듯 정자와 원림(園林)이 즐비하다. 이를 하여

'정자문화권'의 고장이다. 16세기 무렵 조선 사회를 진동했던 사회의 외중에서 중양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사대부들이 이 곳 서면과 봉산면 그리고 남면 일대에 들어 면양정, 송강정, 명옥현, 식영정, 소쇄원, 옥수정 등 정자와 별원을 짓고 은둔하였던 것이다. 송유배불로 사고체계가 굳은 그들의 눈에 풍광 수려한 서봉산 암봉 아래 안개처럼 피어나는 절집의 향냄새는 그리 향기롭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7만여평 감나무 과수원으로 변질된 서봉사지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끝만 보는 사람들의 시력으로 보면 그리할 뿐, 눈여겨보면 감나무 그늘마다 낙과 보다 무상하게 깨어진 자기 조각 등 절 터의 흔적들이 뿔뿔다. 성한 것이라고는 없다. 낙과는 비바람에 깨졌고, 유구들은 절망과 자해로 상처투성이다.

이것이 모두 무엇인가? 지난 번 태풍으로 계곡 곳곳이 패여 겨우 땅 속에 얼굴을 묻고 있던 석축이며 부재들이 곳곳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빗방울이 살짝 건드렸어도 이 정도인데 제대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면 서봉사지는 또 한번 이 땅의 폐사지 지도를 바꿔 놓을지도 모른다.

절 터 중심부에는 석등부재와 패불지주 부재가 한 가루이 장좌불의를 하고 있고, 자연 그대로의 바윗돌을 이용해 만든 토굴이 있다. 바위 돌에 걸린 쪽문은 굳게 잠겼으나 그 형태로 보아 절이 살아 있을 때는 큰스님께서 독차지하던 목 좋은 암자 노릇을 토했을 듯 하다. 입자 없는 토굴 문턱 아래는 떨어진 은행알이 흩어진 연주알인 듯 흐르고 있다. 산비탈에서 들려오는 댓잎 서걱이는 소리가 사문들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로 들린다.

모두 어디로 갔는가? 계곡을 메운 대나무 줄기들은 무엇을 말하려는 듯 저회거리 바짝바짝 다가서며 허리를 세우고 있다. 광주시의 상수원 구실을 하는 서봉사지 계곡은 그린벨트로 묶인 탓인지 청정한 기운이 감돈다. 계곡에는 쇠뿔꽃, 고마리, 바보여귀, 오이풀이 군락을 이루고, 물범 한 마리 재빠르게 풀섬으로 피리를 감춘다. 개울물에 우영하는 버들지도 천적이 없는지 그 지느러미가 손바닥 크기만 하다.

서봉사지에 있던 성보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산의 아픔을 곱씹고 있다. 삼층석탑과 석조형 부도는 도굴범에 의해 반출되려던 것을 되찾아 1969년 호남문화연구소에 의해 전남대 교정으로 옮겨 놓았고, 석조보살입상은 증심사로 이사를 갔다. 가문이 망가졌으니 그 권속들이 사방에 흩어져 애꿎은 장식품이 되어도 누구하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문화재를 그릇된 방법으로 빼돌리는 것만이 도굴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것도 도굴이다. 대나무는 속을 비워 내고 그 절개와 충절을 담아낸다. 속을 텅 비운 대나무들이 눈 부릅뜨고 지키는 폐사지. 그곳이 바로 담양 땅 서봉사지인 것을...

<시인, 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다음은 무안 총지사지 편

후미진 골짜기, 숨은 그림찾듯 절터찾아

온전한 것 하나 없이 도자기 조각만 텅굴어

성보들 전남대·증심사로 뿔뿔이 흩어져



◇폐사의 아픔을 안고 전남대학교의 장식품이 돼있는 서봉사지 삼층석탑.



◇석등기단석(왼쪽), 축대(가운데), 전남대 박물관 옆에 있는 부도(오른쪽).



서봉사지 가는길

서봉사지는 광주에서 동광주 IC로 진입하여 29번 국도로 좌회전, 남원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소쇄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887번 도로를 따라 5km 정도 달리면 된다. 광주호 일대의 정자문화권인 식영정, 소쇄원 등을 지나면 담양읍 남면이나 오고, 서봉사는 남면 석정리 마을 절골에 위치하고 있다.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자미두수전서 / 주역인해 / 전법륜 / 법륜공

자미두수 전서(紫微斗數 全書)



『천하제일의 신수(神數)! 자미두수!』
천년만에 공개되는
『자미두수』의 핵심비밀
그 유일무이한 교과서!

자미두수라는 고전을 자신만이 알고 담은 경험적 진실로 세상에 재해석

김성기(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책을 일독(一讀)에 보면, 자미두수의 그 경이로운 적중률과 구체적 논리성에 대해 이해가 될 것
韓國紫微斗數學會長 碧謙 張正林

중주국인 中國의 어느 해설서라도 능히 제압하는 역작이니 中國 사계의 福壽이다. 易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널리 권장하여 마지않는 바다.
에스콧푸터닷컴 대표 李修

자미두수전서

13년 동안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간과 홍공의 어떤 해설서도 따라오지 못하는 치밀한 해설과 역사! 장장 7년의 세월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이 책은 자미두수를 연구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스승이 될 것이다.

공자 맹자 손자 등 고대인은 물론 의사 장군 등 현대인까지 무려 121명을 예로 들어 풀이하였고, 특별부록 자미두수 CD를 활용하여 생년월일시를 입력하고 연습한다면, 누구나 3개월 안에 자미두수로 본 인생을 논할 수 있다.

※ 4x6매판 1,700쪽, 상하 2권, 100,000원(경반 CD포함)
저자: 이두 김선호.

주역인해(周易印解)



주역 원문에 있는 음과 현트를 표기하고, 정지의 의견에 따라 간단한 해석을 덧붙여,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들어 주역원문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한 책. 비닐커버
※ 신국판, 347쪽, 17000원, 2003년 10월 수정.

전법륜(轉法輪) 법륜공(法輪功)

http://falundafa.or.kr



중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누린 파룬궁, 기공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의심이 될만한 여러 사항(개광, 주화입마, 친목, 불가공과 불교, 남녀쌍수, 성명쌍수, 축유과, 연공조마, 자심생마, 업력과 진화, 살생, 육식, 부채, 속명풍, 요시공능, 청정심 등등)을 대화식 직설화법으로 아홉 번에 걸쳐 명쾌하게 강의한 『전법륜』, 그리고 그 수련하는 방법을 도면과 함께 설명한 『법륜공』이 출간되었습니다.

※ 전법륜 이용지 저, 503쪽, 신국판, 비닐커버, 15000원.
※ 법륜공 이용지 저, 243쪽, 신국판, 15000원.

대유학당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묘산 현응경 미루점 등이 곧 출간됩니다. 대유학도 10월호가 발간 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회경동 258 서신빌딩 403호
(전철 1호선 회기역 2번 출구)



대유학당
2249-5630
www.daeyou.net